



이상민 '메가시티 조성' · 박영순 '국회·청와대 유치' · 허태정 '마을축제 확대'

6·13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 예비후보들 지역 발전 청사진 각각 발표 대전시-베트남 빈증성 '스마트시티' 맞손



이상민(더불어민주당·유성구)을 국회의원은 "대전을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장대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전은 과거 교통의 요충지, 국토의 중심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너무나 협소하고 폐쇄적이어서 큰 그림,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더구나 인위적으로 구획된 행정구역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지나친 경쟁, 소모적 갈등이 유발돼 대전발전에 큰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대전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메가시티, 글로벌 대전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방안으로 대전과 주변 지역인 계룡, 논산, 세종시, 천주, 오송, 금산, 옥천, 영동을 대통합하여 인구 400만 내지 500만 규모의 대도시권을 형성, 메가시티 대전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이뤄내야겠지만 그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기능적으로 한 묶음 권역이 더욱 굳건하게 가속화되도록 주거, 산업, 교통, 교육, 문화예술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빅 벨트" 대전 5개구 전역 외곽 미개발지역과 그 인접 지역에 뿔뚝 뻗어 첨단 과학 기술산업 융복합분야 ~ 국방,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센서, 바이오, 소재, 스포츠, 뷰티 등 7대 분야 ~ 에 집중하여 관련 R&D와 인력 양성, 산업 등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실질적 기능적 대통합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메가시티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메가시티, 대전이 이뤄질 경우 우선 지역 전체 주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회적 후생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면서 "조광역적 발전 계획과 실행이 가능하며,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연계산업 육성, 지역 인력 양성, 지역내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각종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 그 효과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영순예비후보도 6일 공약으로 "대전을 행정수도화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 국가핵심 기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전과 세종이 시너지 효과로 비약적 발전이 기대됐지만, 대전의 인구유출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 등, 막시공중사업영업권 갈등을 빚는 등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이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전과 세종이 시너지 효과로 비약적 발전이 기대됐지만, 대전의 인구유출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 등, 막시공중사업영업권 갈등을 빚는 등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이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영순예비후보도 6일 공약으로 "대전을 행정수도화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 국가핵심 기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대전과 세종을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시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하는 '대전의 행정수도화'를 추진한다"면서 "개현안 확정 뒤, 법률로 수도를 지정할 때 세종시와 함께 대전시 일원을 행정수도로 명시해 대전을 행정수도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전시 일원으로 행정수도가 광역화되면 대전 유성 외삼동, 안산동과 세종시 금남면, 반포면 등 대전과 세종시 인접지



이정복 기자

특히 두 도시 간에 도시철도 연결 등의 상생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등에서 갈등을 넘어 제조업 게임 양상을 보이고, 대전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단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공약을 내세우게 된 배경이다.

박 후보의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전·세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획기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현행 인사제도를 바꾸어 인사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행정수도의 격이 맞는 국가의 대규모 재정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 예비후보는 지난 6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해 주민참여형 마을 축제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오늘부터 대전 마을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린다. 연인,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날"이라며 지역의 벚꽃 축제를 소개한 뒤 특색 있는 마을축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인구 1000여 명의 영국 섬머셋 외곽지역에서는 매년 유럽에서 가장 큰 음악축제 가열려 15만명이 모이고 일본 네부타는 대전의 한 자치구 정도의 작은 도시이지만 매년 축제와 인구의 10배가 넘는 관광객을 유치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소재를 발굴해 마을축제를 활성화하면 지역공동체 회복과 경제 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협약은 국제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양 도시의 공동 협력에 위한 MOU를 체결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정복 기자

대전교육청 전보점수·인사순환제... 인사혁신 나서

맞춤형 인사혁신 5대 개선 방안 등 추진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현행 인사제도를 바꾸어 인사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행정수도의 격이 맞는 국가의 대규모 재정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렬별 대표 및 노조 임원 등이 참여한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TF 2개팀」에서는 8차례 논의와 의견조사를 통해 인사혁신 방안을 도출했고, 대전교육청은 다가오는 정기인사부터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개선방안은 ▲전보점수제 도입 ▲실질적 인사순환제 운영 ▲전임공모제 개선 ▲다자녀·임신·출산 공무원 유예제도 확대 ▲소수직렬 5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전보제도는 전보인사를 객관적으로 설계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근무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다양한 도시서비스제공



대전광역시 9일 오전 11시 시청청사실에서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증성과 스마트시티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정복 기자

이런 협약은 국제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양 도시의 공동 협력에 위한 MOU를 체결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런 협약은 국제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양 도시의 공동 협력에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영호 기자

방법으로 국제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과 운영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대전시는 올 10월 베트남 빈증성에서 개최되는 'WTA 창립 20주년 국제행사'에서 '스마트 도시구축과 글로벌 협력', '스마트 도시 발전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총회와 세계혁신 포럼을 개최해 대전시에 구축된 우수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을 해외에 소개할 계획이다.

이재관 대전광역시청 권한대행은 "우리는 스마트시티 분야에 우월성을 갖고 있는 광역기반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시민 안전 5대 연계서비스'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정책을 많이 알리겠다"며 "우리 지역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당암포 해역 수중유적 2번째 수중발굴 시작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오는 10일 개수제(開水祭)를 시작으로 충남 태안군 당암포 해역 수중유적에 대한 제2차 수중발굴조사를 시작한다.

당암포 해역의 수중유적은 2016년 문화재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조 수사한 도굴사건으로 그 존재가 알려지면서 같은 해 12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발굴을 시행한 후 유적 보호를 위하여 사적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후 지난해 10월 제1차 발굴조사를 한 결과 고려청자와 청자점 등 다량의 유물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학술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제2차 발굴조사로 나오는 추가유물들은 앞으로 사적 지정 여부와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해저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데도 더 명확한 단서가 될 것이다.

박봉관 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hite PALE LAGER

박근혜 형량 '부족하다 48%' > 과하다 29% > 적정11%

<리얼미터> 박 전 대통령 대한 징역 24년 1심 선고 대해 실시 조사결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CBS 의뢰로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4년 1심 선고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족하다' (무기 29.3%, 30년 18.5%는 인식이 절반에 이르는 47.8%였고, '과하다' (무죄 14.8%, 20년 8.1%, 20년 미만 6.0%)는 인식은 28.9%로 집계됐다. '적정하다' (20년 초과 29년 이하는 인식은 11.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무기 징역'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 (18.5%), '무죄' (14.8%), '20년 초

과 29년 이하' (11.3%),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 (8.1%), '최순실 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 (6.0%)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잘 모름'은 11.9%.

지역별로는 민주당(1위) 부족 68.4%, 2위 적정·과함 각 13.3%과 정의당(1위) 부족 59.5%, 2위 적정 23.0% 지지층에서 선고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1위) 과함 67.3%, 2위 부족 8.6%과 바른미래당(1위) 과함 47.2%, 2위 부족 32.0% 지지층 및 무당층(1위) 과함 37.5%, 2위 부족 25.3%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위) 부족 67.7%, 2위 적정 17.0%과 중도층(1위) 부족 52.4%, 2위 과함

29.4%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이 넘는 반면, 보수층(1위) 과함 39.3%, 2위 적정 25.0%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위) 부족 56.5%, 2위 과함 26.8%, 경기·인천(1위) 부족 55.7%, 2위 과함 22.3%, 대전·충청·세종(1위) 부족 54.4%, 2위 과함 23.1%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경북(1위) 과함 40.8%, 2위 부족 34.2%에서는 과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1위) 부족 36.5%, 2위 과함 35.6%과 광주·전라(1위) 과함 39.8%, 2위 부족 38.8%에서는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

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위) 과함 40.7%, 2위 부족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30대(1위) 부족 65.8%, 2위 과함 16.5%, 40대(1위) 부족 56.5%, 2위 과함 20.2%, 20대(1위) 부족 51.2%, 2위 과함 24.5%, 50대(1위) 부족 47.1%, 2위 과함 37.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이다.

김정환기자



대전 동구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구' 캠페인 전개 대전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준보)는 지난 7일 대청호 일원에서 개최한 '2018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 대회'와 연계하여 공명선거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홍보활동은 지역의 행사와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및 사전투표일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관위 캐릭터 인형과 인증사진 찍기, 풍선 등 홍보물품 배부, 선거일 및 사전투표일 피켓 퍼포먼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계룡시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

강홍식 의원 등 회계전문가 2명 위촉, 4월 9일부터 19일간

계룡시의회의회 강홍식 의원은 9일 의정실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감사위원은 총 3명으로 강홍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세무사), 김창성 위원(전 계룡시 기획감사실장)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향후 19일간 2017회계

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운영 효율성 및 적법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김홍식 의장은 결산감사위원들

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4월 27일 까지 실시되는 결산감사 기간 동안에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법·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잘 사용되었는지를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시정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재정 건전성이 마련 될 수 있는 결산감사가 되길"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전병용 대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중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전병용 대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9일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오는 6·13 지방선거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병용 처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소감을 묻는 기자 질문에 "한때 대전에서 가장 중심이었던 중구지역이 해를 더할수록 침체된 것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면서 "그동안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 고민했다. 앞으로 중구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윤석우 공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성황'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윤석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줄을 이었고 오후 2시에 박완주 충남도당 위원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현역 시·도의원 및 예비후보자 등 지지자 1000여명이 참석해 윤 예비후보의 건승을 기원했다. 박완주 충남도당 위원장은 축사에서 "공주에 오니 봄날의 기운이 참 따스하게 느껴진다"며 "이 봄날의 기운이 오는 6.13지방선거

에서 승리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우 후보는 충남도의회 의장과 전국의장협의회장을 역임한 일을 접할 수 있는 후보이고 인덕과 덕담도 함께 갖춘 후보"라며 윤석우 후보를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후보들을 향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공주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원팀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축사에서 도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한 소의를 밝히며 공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복기왕 예비후보, 이동·청소년·노인 등 복지공약발표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는 인권이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며 각 분야별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기존 교육복지로 내건 고교3대 무상정책에 더불어 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전 환경급식 지원, 아동 전문상담센터 구축 등 보육 및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도 밝혔다. 대기오염 배출총량제와 주요 배출지역을 대기보전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에너지 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 기료를 반값으로 인하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65세 이상 무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에 더해 노인복지 대책도 발표했다. 복지외 노년층의 실생활 양상을 구축해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응급의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전성환 예비후보, 양승조 예비후보와 선거 및 정책연대 선언

아산의 정치문화와 질서 훼손은 복기왕 전 시장 '책임'



전성환 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양승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선거 및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지난 8일, 전성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심경과 향후 정치입장을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6.13지방선거는 자치분권시대,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뒤, "시민운동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저 전성환은 시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아산시장 후보로 나섰다"고 했다.

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중심개헌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마저 느끼게 한다"며,

"이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변해야 한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행정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을 행정의 주인이 아닌 소비자로 대하는 관료적 인식으로는 시민주권과 지방분권은 거기에 불과하다. 이 시대 지방정부의 행정에는 군림하는 보스가 아니라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리더가 필요하다. 시민이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우리 아산은 혁신은 커녕 패권적 권력논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적 소명보다는 여전히 학연과 지연 등에 얽혀 지역도호와 기득권체력에 의한 대세론까지 나오는 등 건강해야 될 정치문화와 질서가 크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예비후보는 "전성환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은 아산시민뿐만 아니라 충남의 도정,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도 함께 가야 실현될 수 있다"며, "이에서 전성환은 그동안 견지해 온 충남도지사 선거의 중립적 입장을 거두고 시대변화를 제대로 담아내고, 시와 도의 약속을 지키며, 공공과 시민의 실생활 양상을 구축해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응급의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안필응 의원, 동구청장 접고 시의원 3선 출마선언

충청권 유일 바른미래당 소속 지지체제·시의원 의기투합



대전시 재선 시의원이자 바른미래당 동구 공동지역위원장인 안필응 <사진> 의원은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 추진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같은당 소속(현동구청장과 후보단인화)을 통해 동구청장 출마를 양보하고 시의원 3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안필응 의원은 바른정당 소속으로 동구청장 출마를 위해 지역 민심에 많은 공을 들여와 바른미래당으로 합당 후에도 같은당 소속(현동구청장과 경선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내 경선으로 동구의 발전 추진동력이 조금이라도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구 안보와 의기투합으로 선거에서 승리해 동구민의 행복한 삶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 발생 후 정직하고 바른보수,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동구청장 출마를 위해 새로운 정책 개발과 지역민 심을 청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민의당과의 합당으로 현재 같은당 소속이 된 바른미래당의 현 동구청장이 3선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당의 화합 및 안정을 위해 동구청장

출마를 한시적으로 접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같은당 소속인 현청장이 8년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성실히 구정을 잘 이끌어 왔기에 앞으로의 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같은당 소속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 판단했다"면서 "지역사회의 급변하는 변화에 신속한 대처와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할 때라 판단하였기에 내린 결정으로 앞으로 동구민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3선 시의원으로서 동구와 대전시 발전 정책개발에 더욱 정진하여 교육, 안전, 일자리 창출 등 전국 최고의 자치구 정착에 주춧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한태선 예비후보 지지자, 양승조 후보와 'ONE TEAM' 선언

상반기 총 14개교 994명의 학생 선정... 총 19회 걸쳐 운영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양승조 후보와 'ONE TEAM'으로 충남도지사 경선에 임하겠다는 지지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자와 당원, 천안갑지역 원로교단 등 50

여명은 4월 8일 성정동한태선 선거캠프에서 '양승조-한태선 OEN TEAM'을 선언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양승조 후보는 충남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연속 4선에 성공한 최초의 정치인"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 당 사무총장 등 14년 간 주요당직을 거친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과 한태선 후보가 힘을 합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충남과 천안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며 "양승조 의원과 함께 'ONE TEAM'으로 승리의 결실을 맺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호기자

< 출마합니다 >

손인수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시민과 함께, 소통의 정치'... "낮은 자세로 일하고 늘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손 예비후보는 '시민과 함께, 소통의 정치'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낮은 자세로 일하고 늘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며,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출범한 도시지만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정지역이 아닌 세종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예비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청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예전에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시 메이저시티 입주예정자협의회 1단지 대표로도 활동했다.

세종=이정복기자

6·13 지방선거 세종시 세종시의원 선거(새물·다정·나성동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예비후보가 7일 새물동(새물중앙로 33)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망원 및 지인들과 현역시의원, 시의원 예비후보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취업연계형 산학협력 역점... 대학 브랜드 강화에 주력”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 후보 이재홍 교수

<컴퓨터공학과>

오는 4월 12일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예전에 비해 후보들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앞으로 향후 4년간 한밭대학교를 이끌어갈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이기에 학내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전투데이는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5명의 후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서면 인터뷰 질문지는 공통으로 전달했고, 답변이 도착한 순서대로 게재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총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약 28년 동안 한밭대학교에 근무해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 학교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교육과 연구들 그리고 활동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활용하여, 평생 근무한 직장인 이 한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고, 이에 총장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밭대학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 공업입국에 크게 기여한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으로서, 오늘날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적응이 용이한 학사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저의 전공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전문성을 이용하여 한밭대학교를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립대학이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밭대학교는 지난해 개교 9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했는데요. 총장 후보로서 향후 한밭대학교의 마스터플랜은
 우리대학은 예전부터 산학협력에 강한 대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산학협력의 강점을 살려서 신산업 수요에 적합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발 빠른 대처로 대한민국 최고의 4차 산업혁명 리더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대학을 강소국립대학으로 발전시켜서 90년 역사를 넘어 새로운 꿈을 향한 100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인구 감소로 대학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대학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수년 내에 다가올 급격한 입학자원의 감소에 거의 모든 대학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니며 여러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는 “입학이 곧 취업”인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입학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대학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예전의 취업을 1위 재발현을 위하여 총장이 앞장서서 발로 뛰는 입학과 취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고 싶은 대학, 보내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90년의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의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대학 브랜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 100년 발전방안, 발로 뛰는 총장으로 총장 활동 강화,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시스템 개선, 히든챔피언 양성을 위한 우수인재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도 교육항목이 중요한 것과 같이 창의형 미래 교육혁신을 위해서 자율적 학사구조개편, 대과제 개선, 취업연계형 융합교육과정, 4차산업 대응교육, 창의형 교육환경개선 등 4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대학은 교수들의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져 젊은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큼니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혁신을 위하여 지속 가능연구를 위한 교내연구비, 대학-연구소 협업시스템, 논문 인센티브제도 신설, 교수창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혁신을 위하여 대학원 운영조직 개편, 플랫폼 연구동선설, 본교 학생 대학원 진학률 개선,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개선, 우수 외국인 학생유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내의 잡무로 인한 피로도도 높은 편으로 행정 프로세스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할 예정인데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제도개선, 인사·학사 관리시스템 개선, 학과평가제도 개선,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패러다임 혁신을 위하여 산학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여형 산학협력을 추진하여 전교적 산학협력과 재정기여 및 취업연계형 산학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소통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직원들의 고충해결과 직원-교수간, 학과-본부간 소통과 상생을 위한 열린 행정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세종시로의 이전에 대한 소견은.
 우리대학이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전에 2개의 국립대학이 인접해 있어, 통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나의 대응책으로서 고려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기적으로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이지만

만 우리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사상 초유의 교육 변화기에는 이전에 대한 고려도 해보기 전에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고 아직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단계적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장 직속 대학정책성립위원회 구성하여 우리대학의 성공모멘텀이 무엇인지와 대학의 통합과 이전, 교명변경 등을 총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립대 통폐합 문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밭대도 인근에 위치한 충남대와 공주대와 통합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국립대의 통합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학의 통폐합은 신중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동안 국립대학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통합 후 새로운 시너지보다는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의 역사는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자부심입니다. 한밭대학교는 대한민국 공업입국의 90년 역사를 가진 대학으로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고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좋은 기운이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0년 역사를 무시하고 짧은 생각으로 통폐합을 결정하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통폐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밭대는 그동안 이공계 중심 대학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는 학과 신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정부 또는 대학에서 인위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해서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대학도 2012년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인위적으로 통합학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어서 이전의 학과 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새로운 과학의 발명에 의한 변화보다는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기술의 창출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학사구조 개편보다는 자연스러운 창의적 융합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의 연구개발 환경 증진과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은.
 우리대학은 많은 구성원들이 세대교체가 되어 비교적 젊은 대학으로 탈바꿈하였고 대부분의 젊은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이 연구환경의 개선입니다. 그동안 산학협력담당직을 수행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연구환경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고 연구공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대학의 연구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하고자 합니다. 좋은 교육의 근원은 깊은 연구에 있다고 평소 생각해 왔으므로 우리대학을 연구하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학생교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학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강의실은 보다 쾌적한 최신 강의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노후화된 실험기자재들을 대폭 교체하고 실험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실험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 활용공간으로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고 요즘은 학생들이 즐겨 찾는 카페와 같은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후보님의 교육 철학은.
 저는 컴퓨터공학과 교수로서 28년 동안 학생들과 같이 생활 해왔습니다. 이제 세상은 많이 변했고, 변한 세상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공학자로서 연구하며 깨우친 진리는 “스스로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지식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란 스스로 노력해서 터득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동기를 부여해 주면 행복하게 고민하고 힘든 과정에도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보람을 느끼며 스스로 깨우쳐 나가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스스로 함께 하는 교육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한밭대는 여러 학제 개편과 교명개정을 통해 동문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향후 총장이 되신다면 동문회 활성화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총장이 되면 새로운 100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문회의 새로운 결집과 동문들의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재홍 교수 = <학력>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공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공학박사) <주요 경력 (전직)> ▲대한전자공학회 논문편집위원 ▲대전광역시 대덕밸리 실무기획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문교수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정보화정책책임관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UTD(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방문교수 ▲대전시 도시철도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대전시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미래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대한산업기술지원단 동기이사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연구처장 협의회 고문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연구처장 협의회 회장 ▲대전광역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대덕IT포럼 부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계지문위원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LINC+ 사업협의회 대전총청권 회장 (현직) ▲학교법인 군산기독교학원(서해대) 관선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접비 산출위원회 위원 <포상>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2015년 제8792호) 이정복 기자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주민 스스로 변화의 동력 이끌어갈 기반 마련 중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화지동 55-6번지(구 화지동 꽃피는 희망마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마련하고 9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시는 센터장에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진보 교수를 위촉하고, 사무국장 1명, 코디네이터 2명과 함께 논산시 구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달자·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현장 및 주민협의체 지원 ▲주민 역량강화 및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



▲도시재생사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도시재생사업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활용

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방향설정부서 계획수립까지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벗어난 구도심의 심장을 건강하게 다시 뛰게 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조직"이라며, "인공심장을 심는 것이 아닌, 지역고유의 심장을 다시 움직이게 해 지속가능한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민, 마을활동가, 공무원이 함께 하는 '도시재생 맞춤형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서산시 경로당 운영비 증액 지원 '눈길'

서산시가건강한 노인여가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경로당에 기존 월 1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5만원 증액한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도 1년에 상·하반기로 2회에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물가를 감안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해 이뤄졌다.

이밖에도 시는 376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프로그램 지원 등 16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고 수준의 노인여가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박성현 서산시 경로장애인교장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는 물론 맞춤형 노인복지 시책을 펼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현대차아산공장 음봉면 후원금 전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공장장 정현철)은 지난 6일, 음봉면 행복기움추진단(공동위원장 이강수, 김희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1천만 원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성기)를 통해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보윤)과 아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구신희)에 배분되어 음봉면 및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음봉면권역)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간식 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오영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총무팀장은 "이번후원을 계기로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원 면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아동복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및 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동들을 위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이번 후원뿐만 아니라 아산시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 및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반부패 윤리경영위 열고 청렴실천 의지 다져

철도공단, 올해 부정부패 Zero 원년의 해 선포



공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1인당 15만원 지원, 대상 나이 만 70세에서 73세로 확대

공주시(오시덕 시장)가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안경점, 영화관, 목욕탕, 농협 하나마트 등 2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며, 1인당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고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이면서 세대원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여성농업인(전업농, 겸업농)이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거 지원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가구당 여성농업인 1명에 한하여 지원되며,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장기 윤리경영 전략 수립을 위해 청렴윤리부드만 외부위원인 정준현 교수(단국대 법학과)와 공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공단 본사 상황실에서 '반부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청렴윤리부드만 외부위원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지킴이들은 열띤 토론을 거쳐 반부패 국제트렌드, 정부의 청렴정책 등 대외환경과 공단 내부의 윤리경영 운영현황 및 청렴수준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더 배려하는 청렴 KR 실현'이라는 윤리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 '부패사건 Zero'라는 3대 윤리경영 전략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공공청사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완료

아산시는 공공청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둔포면사무소 및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창호교체공사를 지난달 23일 완료했다.

공사는 2017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선정, 이를 통해 총사업비 3.9억 원(국비 1.56억 원, 시비 2.3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노후 창호 90개소(둔포면 42개소, 온양2동 48개소)를 고기밀 시스템 창호로 전면 교체함과 동시에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쪽 일부 구간에 외부전동차양을 설치했다. 시는 건축물 열 손실의 25%를 차지하는 창호를 고기밀 시스템창호로

교체함에 따라 연간 17,400kWh 전기와 3158L의 등유를 절약해 연간 약 84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외부전동차양 설치를 통해 실내온도를 5℃ 낮춤에 따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읍·면·동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적인 건물유지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비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2018 대전대학교 엠터를 공유하라'

대전대 홍보팀,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



과(부)별 M.T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과 사연과 함께 '2018대전대엠터'라는 이름으로 해시태그 (#해 업로드하면 된다.

참여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오는 25일 추첨을 통해 ▲영화관람권(5명) ▲스타벅스 기프트카드(5명) ▲교내카페 이용권(10명) 등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보팀 관계자는 "엠터는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중의 하나"라며 "뜻깊은 행사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보람된 학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홍보팀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재학생들을 위한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해 화제다.

이번 행사는 대전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이벤트로 '2018 대전대학교 엠터를 공유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최근 진행된 각 학

제4기 노동 상담소 운영위원회 출범

아산시 노동상담소, 신규 운영위원 위촉식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제3기 운영위원 감사패 전달식 및 신규 운영위원 위촉식을 가지고 제4기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임기가 만료된 제3기 운영위원 조경배 교수, 강흥진 의장, 이창수 노조위원장, 문윤민 본부장은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조례에 근거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됐다.

이번 제4기 운영위원회는 상·하반기 두 번의 회의를 통해 노동상담소 운영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무료 법률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심의·결정하며 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안건을 토의하게 된다. 신규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8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이며 1차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를 통해 이상명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가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2017년 사업보고와 2018년 운영계획이 보고되고 무료 법률지원대상 심의·결정 등 안건이 처리됐다.

관외지역 거주민이 무료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이경남 위원은 "타 지역 요청사례가 여러 기관을 통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례의 요건과 취지상 아산시 관내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고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통해 조례를 준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아산=리량주기자

비래동, 복지서비스기반 조성 총력

기초생활수급자전수조사 실시, 복지체감도 UP



대전 대덕구 비래동(동장 정진일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관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9일 동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6월 29일까지 3개월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7세대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맞춤형 복지팀장 등 3명의 직원이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수급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 복지요구를 조사해 그에 맞는 적절한 공적 지원, 인적안전망 구축, 지역자원 발

굴·연계,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복지통합사례의 희망터치 사업'과도 연계해 더욱 세분화되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진일 동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비래동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토지 종류 차이 반영 않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잘못

중앙행심위 '대전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 견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토교통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면서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했고 가격평가의 견제 작성시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

당 토지의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는 대전광역시 동남쪽에 위치한 식당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통진중계소 부지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2017년에 처음으로 표준지에 선정됐다.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목이 '전(田)'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를 참조해 결정됐다. 하지만 지목이 다른 토지와 비교해 평가할 때에는 지목에 따른

토지 유용성 등 가치가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가격평가의 견제에는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가격평가의 견제의 기타 요인 보정부분에서는 지목이 '전'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보다 30%를 감액하여 평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이와 같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해당 표준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다음달 1일

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은 4월 9일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기법법 개정으로 2018. 4. 1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 되어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확대되

어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제고됐다.

*(장부 등 임시보관 기간연장, 중소기업 납세자의 세무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중지(일시)요청, 세무조사관련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시정요구)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행정 운영방안 및 개정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역을하거나 과

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

양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 됐음을 강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국제행정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들의 열의 있는 활동을 당부"했다.

박봉관기자

공주시,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시승식 개최

석장리 세계구석기 축제 등 많은 관광객 증가 예상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7일 공산성 주차장 일원에서 공주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세종시를 연계해 관광 루트를 조성하는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시승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승식은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시민, 관광객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식전행사와 경과보고, 안전운행 기원 비나

리 공연,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가자들은 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해 공산성에서부터 송산리고분까지 약 10분 간 문화관광해설사의 문화해설을 들으며 시승을 했다.

오시덕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주는 유구한 백제역사와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볼거리가 많은 고장"이라며, "공

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운행으로 세종시와의 관광 접근성이 개선되고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주~세종 시티투어는 KTX 공주역을 출발해 송산리고분, 공산성, 석장리 박물관을 거쳐 산림박물관 왕복 운행하며, 세종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광객은 산림박물관에서 내려서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세종-공주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조세박물관, 대통령 기폭관, 호수공원, 도담동 심상장터, 조치원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총 소요시간은 2시간이다.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2대의 버스가 고정된 코스를 약 1시간 간격으로 1일 7회 왕복 운행하며, 요금은 성인 5천원, 청소년·단체 등은 3천원으로, 승차권 구입시 하루 동안 자유롭게 공주~세종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시 '제265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유관기관·단체,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중심



아산시는 지난 6일, 제26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유관기관·단체,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시 대피안내 및 행동요령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아산시의 아산소방서, 아산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아산시 안

문협 등 기관·단체에서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단체별 대표의 안전 관련 인사와 안전구조 제정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시 대피안내 및 행동요령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재 등 비상시 대피안내 및 행동요령 숙지하기 사항으로 ▲첫째, 행사·관람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주의사항, 비상구 위치 확인, 비상 통로 확인 및 안내방송 청취하기 ▲둘째,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피요령으로 손수건 등을 입을 마고 자세를 낮추어 이동하기, 엘리베이터 이용말기, 하중부 대피가 곤란할 때 옥상으로 대피하기 ▲셋째, 응급환자 발생 시 대피요령으로 직원이나 주변 도움 요청하기, 환자의 안전 확보하기, 119로 신고하기 ▲넷째, 올바른 소화기 사용방법으로 소화기 안전핀 뽑기, 노즐 뽑고 불 쪽 향해 서주기, 손잡이 힘껏 눌러주기, 바람을 등지고 분사하기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켓, 현수막을 들며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시민 안전의식 고취와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후 안전총괄담당관은 "비운 뒤 쌀쌀한 날씨에도 안전한 도시 아산 만들기 위해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시민들 모두 수가 재난안전 지킴이 되어 안전한 아산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제14회 송재 서재필

박사 기념식 개최

독립운동가 송재 서재필 박사 기념식이 오는 4월 10일 오전 11시 연무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송재 서재필 박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연무읍 범영회(회장 안일순)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논산시와 논산문화원이 후원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황명선 논산시장, 김형도 논산시의회 의장, 도. 시의원, 각급기관단체장, 유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식전행사로 소설가인 고승철 내남출판 사장 겸 주필이 '도전과 혁신! 서재필 박사의 삶'이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기념식은 장병일 사무국장 사퇴로 논산시시낭송회 김재신 회원의 생애 및 업적보고, 김봉숙 회원 기념시 낭송에 이어 안일순 회장 인사말, 황명선 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김형도 의장 기념사와 유족대표 인사말 순으로 모든 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조폐공사·전자거래학회, 산학간 유기적 협력 교류 나서

블록체인 산학협력 MOU 체결



한국조폐공사(www.komsco.com)가 한국전자거래학회와 손잡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간 유기적 협력 교류에 나선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9일 서울 영업개발단에서 한창희 전자거래학회 회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과 블록체인 분야 산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블록체인

에 기반한 전자거래 서비스 공동 발굴, 학술정보 및 전문지식 교류,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 교류와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전자거래학회 산하에 '블록체인 연구회'를 조직,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국가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등도 연구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건양대병원 '자원봉사 우수기업' 선정



건양대병원(의료원장 최원준)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자원봉사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건양대병원은 지난 2013년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랑나눔 봉사단'을 발족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겨울이면 저소득층 가정이나 소외계층을 방문해 연탄나르기 봉사를 했고 정기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찾아 의료봉사와 환경정화

봉사를 시행하기도 했으며, 보육원 아이들을 초청해 함께 프รอย 구경기를 관람하는 등 그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양대병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교직원들이 마련한 사회사업 기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각종 후원단체의 도움을 연계해 주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봉관기자



서산 의용소방대 등산 도우미로 나서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운)는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에 대비, 소방대원 2명과 대산남·녀의용소방대 30명이 지난 주말 황금산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이날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응급상황 시 119신고요령 홍보 ▲등산객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산악사고 예방 홍보 및 등산로 순찰활동 등을 실시했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랑 산악사고에 대비해 주말 및 공휴일에 등산객들이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실시하는 예방 활동을 말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산행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아산소방서, 화재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지난 6일, 온양온천역에서 아산소방서, 온양여성의용소방대, 아산시청 및 사회단체(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아산시자율방재단, 한국강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화재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건조기 대비 산불예방 및 시민들이 화재 발생 시 비상대피 할 수 있도록 비상문 확인, 화재 시 대피요령을 피켓으로 홍보하고자 실시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 등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시행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당부

청양소방서, 관내 대형·소형 공사장 대상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공사장 등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서는 관내 대형·소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비치 안내 ▲에폭시, 우레탄 등 가연물질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과 사용 지도 ▲임시소방시설 매뉴얼 배부 및 안내문 발송 ▲공사장 소방 순찰활동 강화 등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예산소방서, 인지도스프레이 공장 소방안전교육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9일 오전 8시경 예산읍관직리 소재 인지도스프레이 공장을 방문하여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화재 등 재난예방과 각종 재난 상황 시 대상을 관계인의 자율대처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왜 미루나”

(사)토닥토닥, 설립 약속 이행 촉구 1004배 진행



(사)토닥토닥은 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속한 설립 약속이행 촉구 1004배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속과 다르게 설립이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서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천사가 되자는 의미에서 1004배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대전지역공약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대전 권역 설계비가 확정되어 올해 초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공도 예정 및 계획 연기로 올해 건립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토닥토닥의 정보공개청구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건립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나머지 8개 권역의 건립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개소에 대한 규모가 확정인 안되어 있어 협의의 이후에 하반기 공도를 할 예정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금 정부가 9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대전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님하고 같이 제가 대전시장님께 약속을 드렸습니 다. 올해라도 국회에서 설계비라도 좀 올려주시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바 있다.

(사)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건우와 같은 전국에 있는 중증장애아동들은 제때 제대로 치료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가라앉고 있는데 왜 장애아동의 고통 타입은 무시되고 끝없는 기다림만 강요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현실에 울분을 토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위해 장애아 가족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 만든 비영리단체이다. 어린이재활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고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을 치료하고, 아이의 교육권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통합모형이다.

이정복기자

K-water '내일채움 공제사업' 지원

K-water(사장 이학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 여객동무 프로젝트' 대상 기업을 2018. 4. 20(금)까지 모집한다.

이번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5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5년 만기 재직할 경우, 적립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또한, 공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의 장기 재직에 따른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5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참여 희망기업은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에서 지원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거나, K-water 물산업플랫폼센터(042-629-2521)로 문의하면 된다.

박봉관기자



대전시, 상시·지속업무 용역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311명 시 직접 고용, 향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예정

대전광역시시는 9일 오후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311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직종 및 인원은 청사 79명, 주차 5명, 경비 13명, 취사 10명, 미화(하천) 11명, 조정 4명, 시설관리 72명, 관제센터 63명, 검침 54명 등이다.

외사유 해당자 등 203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사·전문가협의회 위원장인 대전시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며 "우리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화는 더불어 잘 사는 상생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에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거점으로 대덕구청장 후보 기사화 논란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9일 최근 조정협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표면화되는 바른미래당 대덕구청장 후보군이라고 기사화를 요구하면서, 7명의 대상자를 실명으로 언급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대덕구청장 예비후보였던 A 인사를 거론한 것이 운동 거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거론된 A인사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음에도

분명하게 백의종군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같은 바른미래당의 행태에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다.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고작 바른미래당의 전략이고 미래이다. 한심하다 못해 측은할 지경"이라며 "겨우 자당의 이름으로 변변한 인물군을 찾지 못하고, 이 당 저 당에서 자당의 정체성과도 일치하지 않는 명망 있는 인사들을 거론하여 대전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데 혈

안이 돼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문자 통화를 했다'고 변명했으나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한다. 그저 참담할 지경."이라며 "바른미래당은 공당의 체면조차 무색하게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진상을 조사하여 대전의 유권자분들에게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제발 부끄러움을 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공주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대대적 홍보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의 교체 홍보에 나섰다.

초기화재에서 한 개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안전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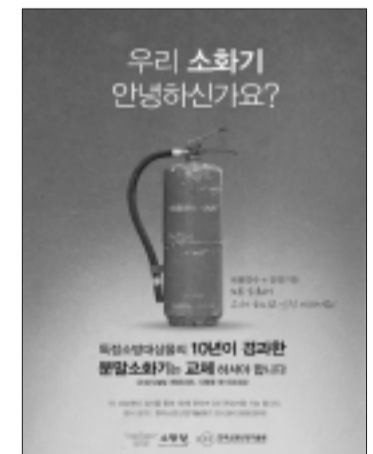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소화기 표면의 제조연월을 확인해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빠른 시일 내 교체를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자체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태안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 위해... 교체 적극 당부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서천도서관,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



서천교육지원청 서천도서관은 제54회 도서관주간(4.12~4.18.) 및 2018 책의 해를 기념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주간은 도서관의 가치

와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독려를 위한 행사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독서문화 캠페인이다.

서천도서관에서는 도서관주간을 맞아 신규 및 대출회원 예코백 증정,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4.14(토)), 책표지 가방 만들기(4.14(토)), 작가 초청 강연(4.17(화)), 대출정지 반짝해제, 추천도서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작가 초청 강연은 대상으로 한태희 그림책 작가와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고 문지도 그리기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천=김태선기자



대전충남병무청, 육군훈련소 임영문화제 열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9일 육군훈련소 임영문화제 앞광장에서 임영자와 동반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제1회 육군훈련소 임영문화제"를 열었다.

유미자 꿈나무장학회장 "지방의원의 소명은 이웃사랑"

유성구 제4선거구 대전시의원 후보 확정

유미자(52·사진) 꿈나무 장학회장이 대전 유성구 제4선거구(구죽 관평 전민) 자유한국당 대전시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유 후보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을때까지는 감동이 많았으나 일단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권익과 교육 시장경제를 민원을 함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후보는 "꿈나무장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소

외원차상위 계층이 많음을 알게되었고 그분들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어 출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시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사회봉사 및 교육부반이고,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소득증대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며 청소년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소명은 이웃사랑"이라며 "민원 등으로 어려울때 내대신 심부름을 해주는것 또한 의원의 몫이며,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것도 의원이라야 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유 후보는 "만나면 반가운 얼굴의 이웃 사촌같은 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꿈나무장학회장(현, 대전투데이 논설위원(현), 충효인성교육원 대외협력부위원장(현))을 맡고 있다.

이정복기자

한국교총 “공기정화장치 실질 활용률 높여야”

효율적 유지 관리방안 수립 등... 추가적 행정 지원 및 보완 뒷받침돼야

한국교총(이하 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 결석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 고농도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6일 논평을 통해 "점점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제라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학교마다 공기정화장치 등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실제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들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설치뿐 아니라 효율적인 유

지 관리방안 수립·실시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시범 사업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행정 지원 및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공기정화장치의 확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학교현장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설치교 514교(1만 1302대) 중 7,489대(66.3%)가 사용 중지 상태이고, 3,813대(33.7%)만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전기료, 필터 등 운영비용 부담 ▲유지·관리(청소) 부담, 교장 시 긴 수리기간, 사용방법의 불편

의 곤란 ▲공기 질 개선 효과 미흡 ▲소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운영비 부족에 시달리는 학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등의 문제로 여전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정화장치의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운영비 확대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개발 등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노후화된 교실 장치의 교체로 기밀 성능도 향상 시켜나가야 한다. 공기정화장치 등 기계 설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문 등 교실 장치의 기밀 성능도 강화해야 하므로 노후시설 개선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약 2200억 원) 및 학

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약 3,800억 원) 등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부담과 학교운영비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당 2명의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는데, 담당자 지정만 요청할 뿐 이에 대한 운영 원천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에 있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감군 학생과, 미세먼지 정도에 따른 학교조치, 공기정화장치 관리(필터교체 등) 유지·보수 등에 대한 업무분담이 원활히 이뤄져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 역량강화 연수

공주교육지원청 Wee센터 '갈등조정프로그램' 주제로 진행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Wee센터는 9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및 Wee센터 직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

공주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며 학교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4월에는 '갈등조정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대전 평화여성회 최영민 대표의 강의로 역량강화연수가 진행되었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은 물론 자질을 함양시키고, 학교현

장 적응력 및 학생상담 대처 능력을 신장시키며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덕 교육장은 "이번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상담자원봉사자들의 현장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것과 동시에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봉사자들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시교육청,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학교 21개교 선정

학생들의 대안교육 수요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운영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대전 지역 21개교(중 19개교, 고 2개교)에 학교교육에 대한 흥미 증가로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1억 9000여만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 내 대안교실이란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

성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학급'이다.

2013년부터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이를 통해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을 경험하고, 학교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4월 9일, 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학교 업무담당자 21명 협의회를 실시했으며, 학생의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추후 대안교실 운영 컨설팅 실시, 대안교실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유망교 표창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대안교실은 학습 의욕을 상실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학교를 오래 싶은 학교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 학교 내 대안교실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이 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청소년안전 콘텐츠 공모전 16개 수상작 선정

4.16 세월호참사 4주기 맞아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 위해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16 세월호참사 4주기를 맞아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18 세종교육 청소년 안전 콘텐츠 공모전'에 접수된 총 120여

편의 작품 중 16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대상으로 선정된 세종도원초등학교의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는 항상 안전을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이야기와 부모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실체 고건용(세종도원초 4) 학생과 신성남(고건용의 모래의 목소리와 4학년 7반 21명의 학생이 참여한 그림을 함께 엮어 UCC에 담았다.

"엄마 아빠도 안전 꼭 지켜주세요. 안전을 지켜야 우리가 행복할 가족이 될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초등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해 우리 모두가 안전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을 되새기게 했다.

대상작 이외에도 ▲ '간접 흡연도 학대

입니다'라는 카피를 담은 안서빈(잠샘초 6)의 포스터 ▲미세먼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크게 해친다면 미세먼지 예방법을 유쾌하게 설명한 김은종(한솔고 1)의 UCC ▲4주기를 맞는 세월호참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슬아(새울중 1)의 웹툰 등 총 16개 작품이 교육감상과 상금 320만원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이달 20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11일부터 27일까지 세종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수상작 전시회가 개최된다. 수상 작품은 세종시교육청 공식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sje_go_ki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 작품을 비롯한 참가 작품은 향후 세종시교육청 공식 SNS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세종=이정복기자

'2018 좋은 사이버 학부모교실' 운영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충남도내 학부모들 대상



충남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영희)은 충남도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8 좋은 사이버 학부모교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9일부터 수강 신청 받는다.

'좋은 사이버 학부모교실'은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콘텐츠를 통해 인문학, 철학 등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해 평소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지식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총 8기수로 매 기수당 6

주간 운영되며 1기는 천안·공주·아산·청양지역에서 16일, 2기는 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태안 지역에서 23일 개강한다.

충남도내 학부모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bumo.edus.or.kr/ngedu/)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고 수료하면 이수증이 발급된다.

스마트기기(http://m.bumo.edus.or.kr)를 통한 교육은 별도의 로그인이나 수강신청 과정 없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김영희 원장은 "새로워진 충남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학부모들이 충남교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정복기자

충남교육청, 2018년도

지역별 교육재정설명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예산을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해 11일부터 26일까지 지역별 교육재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일 서천을 시작으로 13일에는 금산, 논산·계룡지역, 16일 서산, 청양지역, 17일 보령지역, 23일 아산, 당진지역, 24일 홍성, 태안지역, 25일 천안지역, 26일 부여, 공주, 예산지역 등에서 교육예산 현황을 설명하고 201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다.

이번 재정설명회는 주민에게 교육재정을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해 충남교육예산 설명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지역 주민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과 교육정책 등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받아 수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대한민국 독도, 세종에서 만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4월 독도교육실천의 달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독도는 우리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지난 4월 세종시 새롭고에서 열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대회'에 이어 릴레이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 □□ OO에서 만나다'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세종시교육청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ejongedu)에 댓글로 달면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관내 학교 부지 내에 독도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벤트에 사용된 문구는 세종시독도전시관관장 윤재국의 대표 슬로건이다.

세종시독도전시관은 지난해 8월 상설전시관으로 개관해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해 학생과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관 개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09:00~16:30)이며 ☎044-999-634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이정복기자

아산시평생학습관, 2018 아산청백서당 고전강좌 개강

'주역으로 풀이하는 천자문'·'주역과 음양오행' 2과목 운영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지난 5일, '2018 아산청백서당 고전강좌'를 개설하고 개강식을 가졌다.

'2018 아산청백서당 고전강좌'는 주역으로 풀이하는 천자문과 주역과 음양오행 2과목을 운영하며 총 9개월간 진행되는 장기 교육과정으로 4월 5일(목)부터 12월 6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오랜 시간 한자와 유학 경전을 연구하고 강의와 저술 활동을 해오신 家苑이윤

숙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된 '2018 아산청백서당 고전강좌'는 오전(주역으로 풀이하는 천자문과 오후(주역과 음양오행) 모두 4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시종 열띤 학습 분위기를 연출했다.

개강식에 참석한 아산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은 "강의에 앞서 동양고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학습자분들에 대해 감사와 함께 마지막 수업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습자는 "家苑이윤

숙 선생님의 동양고전 강의를 우리 지역에서 들을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준 아산시평생학습관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평생학습관은 "2018 아산청백서당 고전강좌"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삶의 지혜가 담긴 동양고전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평생학습관☎041-537-39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산지조직 농산물 상품성 향상실무" 과정 교육생 모집

aT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품질관리 실무향상 과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간 경기도 수원시 소재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산지조직 농산물 상품성 향상 실무'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산물 안전성 및 판매형태, 포장단위 다양화 등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생산을 위해서 농산물 전처리 등 수확 후 관

리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농산물 상품화를 고민하고 있는 생산자와 산지조직 담당자에게 유익하도록 기획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비롯한 안전성 관리 방법부터 농산물 수확 전·후 관리기술, 최근 농산물 유통 및 소비트렌드 변화, 농산물 품질관리 우수 현장견학 과목이 동반되어 농산

물 생산 및 유통 실무자들이 농산물 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자부담 3만4천원으로 교육에 참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T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cator.aT)와 교육운영부(031-400-35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보령교육지원청Wee센터, 2018 Wee클래스 사례회의(Wee Study) 개최 보령교육지원청Wee센터(교육장 조민행)는 지난 6일 보령관내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들 대상으로 '2018년 Wee클래스 사례회의(Wee Study)'를 개최했다. 이날 사례회의에서는 Wee클래스 담당자들의 긴밀한협조체제 유지하고 상담실 운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방법과상담사례 선정 방법 및 운영범위에 대한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동위원회 [동심] 출범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7일 이동위원회 40명과 주민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위원회 '동심' 출범식을 가졌다. 이동위원회 '동심'은 아이들의 마음(童心)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同心) 세상을 변화시키(童心)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참여증진활동이다.

● 특 ● 정 ● ●

언론 브리핑 주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10일 오전 10시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언론브리핑」을 주재.

상반기 4대 폭력예방 직원교육



김석환 흥성군수= 10일 오후 2시 흥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18 상반기 4대 폭력예방 직원교육에 참석.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공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인병택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공연을 오는 27일 저녁 7시부터 한시간 동안 세종호수공원 대화공연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현대무용단을 이끄는 안성수 예술감독의 신작으로 지난 3일간 서울에서 진행한 2018년 첫 시즌 프로그램 초연 그대로를 세종 무대에 올린다.

특히, 댄싱9에서 우승하며 국내 최고의 테크닉과 표현력을 인정받은 최수진과 성장용, 매튜 리치, 안남근 등 2018년 시즌 무용수 전원들이 출연해 흥겨운 춤판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스웨덴 남성 6인조 재즈밴드인 '젠틀맨 앤 엑스터즈'가 연주한 '싱싱싱(Sing sing sing), 인 더 무드(in the mood)' 등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스윙 재즈 16곡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sjcf.or.kr) 또는 전화(044-850-0541)로 하면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사적 231호 인회당 문화체험장 개

홍성군이 따뜻한 봄을 맞아 사적 231호인 인회당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성군이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인회당 연꽃 향기에 취하다' 프로그램은 체험비 1,000원을 내고 인회당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며 연잎차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매년 2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수익금 전액을 홍성 사랑장학회에 전액 기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인회당 찾길 프로그램은 2015년 문화재청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며 문화재청 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군은 이에 힘입어 올해에도 찾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회당을 활용해 ▲뮤지엄 in 인회당 ▲아뜰리에 in 인회당 ▲어뮤즈 with 인회당 ▲with 자유학기제 ▲문화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문화 체험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먼저 뮤지엄 in 인회당 사업으로는 흥주목사 체험학교, 흥주인물과 프렌즈, History-telling 한국어, 문화유산 체험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회당과 흥주읍성 및 관내 유적지를 돌아보는 역사문화교육체험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어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아뜰리에 in 인회당 사업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전통 목공예 기법을 체험해보는 전통 목공예 교실과 군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미술전시회가 열린다.

또한 어뮤즈 with 인회당 사업으로 어린이 다례교실, 커피 인문학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인회당과 여허정 앞 잔디 마당에서 지역 예술가와 외부 유명 예술가를 초청해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야외 공연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성=김정환기자

충남도, 지역 신산업 육성·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선점

충남도가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 맞춤형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도는 산업동상지원부의 '2018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공모에 도의 '건강맞춤 미래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의 시스템산업거점기관 지원 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산업부로부터 지역 거점 신규추진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후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사업계획서를 제출, 이번에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90여억원을 포함, 총 155억 원을 투입해 순천향대 지역혁신센터에 프로바이오틱스 거점센터를 구축한다.

프로바이오틱스 거점센터는 고기능성 제품 개발 및 기능성 평가, 임상시험 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산업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생산은 물론, 품질 검사·인증 등 '일-스톱, 올-셋(One-Stop, All-in-One)' 지원 시스템을 구축, 관련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생산액 전국 3위 수준인 식품·화장품·의약품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내 산업 발전,

프로바이오틱스의 원료인 구기자와 딸기, 토마토 등 생산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신 성장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로, 이번 기반 구축 사업은 충남이 개인 맞춤형 건강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산업 집적화를 통해 도내 기업이 물론 이웃 지역 기업들이 충남 거점센터를 이용,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바이오틱스는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 있는 미생물로, 최근 식품은 물론, 화장품과 의약품까지 응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 참샘 무궁화 정원 개장

무궁화 테마정원, 숲속 산책길·휴식공간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무궁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한 '참샘 무궁화 정원'이 9일 개장했다.

한솔동 세종보 인근 금강변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무궁화 테마정원으로, 아름다운 조망과 함께 세종시 대표 무궁화 명소가 될 전망이다.

정원은 무궁화를 꽃 색깔에 따라 6가지로 구분(계통)해 심고, 나무마다 이름표를 달아 무궁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무궁화 꽃 색깔로 구분(6가지) 계통은 배달계, 백단심계, 적단심계, 자단심계, 청단심계, 아사달계로 구분하여 심어 놓았다.

잡목을 정리해 걷고 싶은 숲속 산책길을 만들고, 한국식 정자를 배치하여 운치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또 모래 놀이장을 설치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내판을 걸어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 세종시는 이날 이춘희 시장, 지역 인사,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무궁화 기념 식수, 정원의 시설물 설명, 무궁화 묘목 분양 등을 진행했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시의 '나라꽃 무궁화 사랑하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삼천리강산에 무궁화를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샘 무궁화 정원은 특별교부세(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 조성됐으며, 대상지 결정과 명칭 선정 과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유관순 열사 애국애족 정신 계승할 것"

제17회 유관순상 시상식...신동학 상임대표 수상 영예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남궁영)가 충남도지사 권한대행(가) 9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제17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열고 신동학(새국체보상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에게 유관순상을 전달했다.

이날 시상식은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류정우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유관순 열사 유족과 수상자 가족, 여성단체,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관순상은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시대에 맞게 구현하고 있는 여성을 선발·시상하는 포상 제도다.

이번 유관순상 수상자로는 신동학(새국체보상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가 선정돼 상장과 트로피, 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신동학 대표는 의사이자 사회사업가로 평생을 지역 사회 발전과

여성의 권익보호와 발전,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실천해 온 대표적인 여성리더다.

신 대표는 특히(새국체보상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로, 지난해 10월 국제보상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신 대표는 또 지난 2008년부터(씨인하는) 여성연합을 창립·운영하며 일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에 노력해 왔다.

이외에도 신 대표는 여성전문병원인 여성메디파카병원과 동학여 린이집을 설립·운영하는 등 여성과 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실천해 온 점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 대표는 시상식에서 "호국영

웅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충남에서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라며 "국제보상운동의 국민적 책임정신과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해 우리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와 함께 유관순훈장상 수상자로 선정된 북인고등학교 정하민 학생 등 여고생 14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유관순훈장상 수상 학생들은 공적심사에서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건전한 학생문화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지난 1월 유관순상위원회 주관 워크숍 활동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수상자로 선정, 상장과 상금 150만 원을 받았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과기정통부, 공공 와이파이 확산 협약 체결 9월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9월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세종시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 와이파이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는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 운영하고, 정통부는 가이드라인 개발, 보안, 통신품질 등 기

술지원을 맡아, 와이파이 확산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민원실, 복지시설, 버스터미널, BRT정류장, 호수공원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23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하여 시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미세먼지 배출원 '추적' 나선다

충남·경기·제주 보건환경연구원, 성분분석 공동조사 착수

과파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는 누가 내뿜었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법한 건강증 해결을 위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이 팔을 걷고 나섰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미세먼지(PM2.5) 성분 분석 공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오염 수준, 유해성분 등의 자료를 확보, 미세먼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군과 문화재청, 환경부는 4개월간 실시하는 무분수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논 농부 조성,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 내 어도조성 등의 서식지 복원을 해왔으며,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은 20여년간의 황새 복원 기술을 적용해 황새 야생 번식성공률 증가, 유전적 다양성 증가, 서식지 복원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고 있다.

LG상록재단은 황새인공둥지 15개소와 임시 계류장 5개소 건설을 후원했으며 120여 농가로 구성된 황새생태농업 연합회는 2011년부터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면서 140ha 규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지역을 조성해 안전한 황새 서식지를 만들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황새 인공둥지 15개소와 임시 계류장 5개소 건설을 후원했으며 120여 농가로 구성된 황새생태농업 연합회는 2011년부터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면서 140ha 규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지역을 조성해 안전한 황새 서식지를 만들었다."

채취 시료는 중량농도법과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열광학적투과도법, 유도결합플라즈마법 등을 활용, △미세먼지 중량농도 △이온 성분 8종 △탄소 성분 2종 △금속 성분 12종의 농도를 분석하게 된다.

분석 자료는 대기모형링을 활용, 지역 및 오염원별 미세먼지 기여도 평가를 하게 된다.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석탄화력이나 철강, 자동차, 난방연료 등 구체적인 배출원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는 세 보건환경연구원 공유, 지역 배출원 등 미세먼지 관리, 저감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일반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최근 기상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제주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발생원 추적과 위해도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홍성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

홍성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각 개별사업 근거 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8년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대상자의 모든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격과 급여 선정 등에 반영하여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함이다.

확인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 계층지원, 타법의료급여(3종),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지자체 보훈수당 등 14개 복지사

업이 있다. 조사방식은 국제청 및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 7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활용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군은 조사결과 고의나 허의 신고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금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군은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격 탈락 기구의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지원 연계를 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정환기자

동정

업무협약식



김홍장 당진시장 =10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당진시·당진 예코파워 신재생에너지 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

경진대회



강준배 청양부군수 =10일 오전 11시 30분 군 환경사업소에서 열리는 제6회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에 참석.

농어촌 이동복지관



한상기 태안군수 =10일 오전 10시 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농어촌 이동복지관을 방문.

가축전염병 없는 청양

가축예방약품 집중 실시

청양군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 9일부터 오는 6월 30일(약품 소진 시)까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집중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약품 집중은 소, 돼지, 닭, 개, 양봉 등 14종을 대상으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소와 개 약품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공급되며 영세농가에 우선으로 지원하며, 사업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 농가당 약품별 10두분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 돼지, 닭, 양봉 약품은 해당 협회에서 공급한다.

군은 백신을 받은 후 잘못 보관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약품공급 시 주의사항을 지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염병 발생 시 많은 피해를 주지만 약품을 집중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중할 때는 실시요령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음봉면 주민자치위원회 대청소 실시

아산시 음봉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순임)는 4월 6일 음봉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대청소를 실시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 약 30여명이 참여해 면 시가지 중심지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겨우내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김희원 음봉면장은 "봄을 맞아 대청소에 열심히 참여해준 단체 및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음봉면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면천읍성 국가사적 승격 추진한다

당진시, 충남도 국가지정 승격 추진·대상 문화재 선정



당진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인 면천읍성이 충남도가 국가지정 승격을 추진하는 대상 문화재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면천읍성이 국가 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1993년 충청남도 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지 25년 만이다.

조선 세종 때인 1439년(세종 21년)에 왜구 방어를 위한 읍성 축조 계획에 의해 건설된 면천읍성은 조선 초기 면천 지역의 행정중심지를

보호하기 위해 돌로 쌓은 석축 성이다. 면천면 소재지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던 평지성이다.

축조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세종실록에, 읍성의 규모는 문종실록에 자세히 기록돼 있으며, 그 외에도 여지도서, 신증 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문헌에서 면천읍성의 구조와 시설물이 확인된다.

또한 여지도, 해동지도, 면천군 계획에 의해 건설된 면천읍성은 조선 초기 면천 지역의 행정중심지를

는데, 특히 1872년 면천군 지도에는 동헌과 내아, 객사 등의 건물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면천읍성은 단순한 조선시대 읍성의 가치를 넘어 역사적 사건의 주요 무대로서도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조선 전기 청렴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된 맹사성이 지군사로 근무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연암박지원이 지방관으로 3년 간 근무하며 과농소초와 칠사고 등을 저술한 역사

적 장소다. 아울러 조선 후기 천주교 유입 등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박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전투장소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도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면천읍성은 1906년 의병장 최구원이 을사늑약에 항거해 공격한 의병 전장이기도 했다.

당진시는 이러한 면천읍성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미래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92억 원을 투입해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읍성의 서벽과 남벽, 남문이 복원된 가운데 영랑 효 공원 이 성내에 조성됐으며, 현재는 성안마을과 저자거리, 서남 치성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면천읍성이 국가사적 승격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당진시는 역사자료 확보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오는 10월 충청남도의 최종 심의에도 통과될 경우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가사적 등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농작업 직접 지원 일손부족 해소

농촌인력 부족 해소 위해 민선6기 들어 '농작업 지원 사업' 추진



농촌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태안군이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시행으로 추진 중인 '농작업 지원 사업'이 농번기를 맞아 지난달부터 다시 시작돼 영세농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태안군(군수 한상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2일 태안읍 석선리의 한 농가에서 감자두둑 성형 작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도 농작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작업 지원 사업은 군이 보유 중인 트랙터, 로타리, 배토기, 비닐

파복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활용, 전담 인력이 직접 농가를 찾아가 경운, 로타리, 두둑형성, 정지작업 등의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단순히 보여주기 식 일손지원을 지양하고 군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농기계를 활용해 직접 작업에 나서서 '직접지원' 시책을 전격 추진, 영세농업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으며 태안군의 대표 시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호평 속에, 군은 시행 첫 해 총 14ha의 농경지를 방문해 100건의 농작업 지원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268건(40ha)의 농작업을 지원,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은 올해 농작업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인력을 보충해 기존 2개조에서 3개조로 확대

운영하고 장비 보강에 나서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작업 지원 사업은 ▲75세 이상 농업인 총 밭면적 0.5ha 이하 ▲65세 이상 여성 1인 농업인총 밭 면적 0.5ha 이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공익 목적의 노인회 농지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작업료는 3.3㎡당 100원이며,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작업 10일 전까지 전화(041-670-5086) 또는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상기 군수는 "군은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이번 농작업 지원 사업을 비롯, 전 공직자 참여하는 일손지원을 실시하는 등 영세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교육 확대 실시 등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인주청년회 인주면에 전기오븐렌지 기증



인주청년회(회장 김태수)가 지난 6일, 인주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정광희)에 저소득가정에 전해 달라며 전기 오븐렌지를 기증했다.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김태수 청년회장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에서도 오븐렌지가 꼭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복키움추진단에 물품을 기증하게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추진단의 나눔활동에 참여할 것을 약속

했다.

정광희 추진단장은 "우리지역은 아직도 후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는 기관단체가 있어서 큰 힘이 된다"며 인주청년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인주청년회에서는 매년 명절 전후로 저소득 및 경로당에 물품지원 및 격년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논 타작물 재배 기술지원반 운영

당진농기센터, 논 타작물재배 농가에 컨설팅 지원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코자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센터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지원에 앞서 9일 8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

안전재배를 위한 기술교육과 성과사례 위주의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센터는 성공적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추진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타작물 실무반과 종자 지원반, 농업기계 지

원반, 현장 상담반 등 8개 기술지원반을 운영해 농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 문제를 해소하고 타작물 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센터에서도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은 지난해 벼 재배 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한 농업인과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ha당 ▲조사료 400만원 ▲두류(콩)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센터 식량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허재권 부군수 취임 100일 맞아

태안군, 현안사항해결·지역 안정 이끌며 발전방향 모색

지난 1월 1일 태안군의 제16대 부군수로 취임한 허재권 태안부군수(사진)가 4월 10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2015년 서기관 승진 후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투자입지과장을 역임한 허재권 부군수는 우수한 행정 장악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 태안군 부군수로 부임했다.

허 부군수는 취임 후 빠른 군정 파악으로 내부행정을 아우르는 동시에 주요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군정 발전을 이끌고 있다.

또한, 탁월한 분석력과 기획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상기 군수의 군정 운영을 조화롭게 뒷받침하는 한편,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행정에 앞장서는 등 현안 해결과 함께 지역의 안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온화한 성품과 따뜻한 미소로 직원들을 아끼고 배려해 내부적으로 높은 신망을 얻고 있으며, 각종 행사 현장 등 지역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기도 하다.

허재권 부군수는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수님을 정점으로 60여 공직자의 힘을 하나로 모아 '희망찬태안' 시대 개막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청양군 부자 농촌 만들기 박차

산림소득팀 신설·입업인 복지 향상

청양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소득팀을 신설하고 입업인 복지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지난 1일 산림축산과 내 신설된 산림소득팀은 4명(팀장1, 직원3)으로 편성돼 주민 눈높이에 맞춰 농림지원사업 업무 및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밭·표고·산야초·왕대추 등 군 대표 임산물 브랜드 향상과 입업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칠갑산표고응축화사염,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임산물기반지원사업 등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부자농촌의 한축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현숙 산림소득팀장은 "입업인 소득향상을 통한 부자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신창면 전 직원 친절·청렴교육

아산시 신창면(면장 김정식)은 지난 5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공직자 친절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중에 직원들은 민원 유형별 응대요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금품·향응수수 행위 금지 등 친절과 청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식 면장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와 청렴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창면은 '청렴한 오늘! 따뜻한 내일! 신창면이 함께해요!' 라는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 의지로 나 자신의 행복과 민원인의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계룡시 '충남사회조사' 실시

다음달 7일까지...900가구 대상 조사원 방문조사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내 900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충남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 총체적이고 집약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계조사다.

조사대상은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 중 900가구 표본조사로 하고,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응답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항목으로는 건강, 가구·가족, 교육, 소득·소비, 주거·교통, 환경, 안전, 여가·문화, 사회통합, 도정특성 등 12개 영역별 항목과 계룡시 특성항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은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만큼 조사요원들을 패용한 조사원 방문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서무팀(042-840-2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서천군, 15만원 상당의 행복카드 발급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란 여성 농어업인이 카페, 수영장, 화방, 아동 및 유아복합,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안경점, 농협 하나마트 등 20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록을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ha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여성농어업인 1인당 자부담 3만 원을 포함한 15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협 서천군지부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농가당 여성농어업인 1인에 한해 지원되며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 또는 직장에서 선택복 복지서비스공무원,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부여평생학습 열기 "활활"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등 수요자맞춤 교육 진행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처음에는 짐작할 수 없었어요. 이제 하얀 도화지에 색을 입히는 작업이 즐겁고 행복해요. 평생교육이란 딱딱한 말보다 항상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있어 부여평생학습관이 참 좋아요." 이번 정규강좌로 처음 시작한 수채화 교실의 한 수강생의 말이다.

부여군은 군민들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양 인문, 건강, 취미, 자기개발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부여군평생학습관에서는 상반기 49개 강좌를 열고 1,00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스프레소 머신과 제빵 전문설비를 보강해 실습이 필요한 강좌를 만들고, 직장인을 배려한 야간강좌도 확대해 교육기회를 넓히고 있다.

평생학습관으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여한글학교(15개 마을)를 운영하고, 초등학교인정 문해교육(3개소)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어르신 대상 '곳모님 영어교실(2개소)'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영어를 배워 이전 간판에 있는 영어도 읽을 수 있다'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이 원하는 강사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포크집 강좌, 주말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시·군 특성과 평생교육프로그램(공정여행가 양성과정) 등 평생교육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 정규강좌와 함께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교육 받기 어려운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발했다.

'쾌적한 천안' 도심속 녹지공간 확대

천안시, 9억7천만원 투입해 '도시숲 사업' 본격 착수... 주민편익시설 설치

천안시가 이따부터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녹색 휴식공간을 만드는 '도시숲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시숲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미조성 녹지와 자투리땅에 수목식재 등 녹지 조성과 기타 주민 편익 시설 설치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녹지의 기능을 충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산림공원 조성 2곳, 녹색쌈지숲 1곳, 맞춤형 녹지환경 조성 3곳, 학교숲 2곳, 공유지 녹지 조성 1곳, 복지시설 녹지 조성 등 총 10곳 4만 2,190㎡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총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나무를 식재하고 조경석 쌓기와 정자, 운동기구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또 소나무, 철쭉, 영산홍 등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휴식 공간과 녹음을 조성하고 야간에 도 운동 등을 겸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가로등도 설치해 운동과 휴식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마련한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차암동 외 14곳, 1만 0,680㎡에 도시숲을 만들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천안=이홍호기자

비속·꽃샘추위 속에서도 글로벌 축제위상 실감

주한외교사절 대거 방문·논산딸기 세계화 기폭제 마련



2018 논산딸기축제 가 비와 꽃샘추위 속에서도 주말 인산인해를 이루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물론 글로벌 축제 위상을 실감케 했다.

4월 4일부터 8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딸기밭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18 논산딸기축제는 50여년의 재배역사가 담겨있는 친환경 명품 논산딸기의 진면목과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시키며 5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논산딸기축제는 관람객 58만여명이 찾았으며 딸기판매 및 논산딸기 브랜드 상승효과 등 240여억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축제는 4일부터 8일까지 첫째날은 관광객과 함께하는 날, 둘째날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날, 셋째날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날, 넷째날은 화목한 가족 만들기 날, 마지막 치와 딸기밭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18 논산딸기축제는 50여년의 재배역사가 담겨있는 친환경 명품 논산딸기의 진면목과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시키며 5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논산딸기축제는 관람객 58만여명이 찾았으며 딸기판매 및 논산딸기 브랜드 상승효과 등 240여억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어 논산딸기의 유명세를 입증했다.

체험 외에도 자전거소풍길대행진, 딸기사생대회, 전국어린아이재롱놀이공연, 제4회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청소년트롯가요제, 팝페라콘서트, 락페스티벌, 버스킹공연을 비롯해 개막 축하공연, 논산 시민화합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가미돼 다소 쌀쌀한 날씨를 아쉬워하면서도 객석을 가득 메웠다.

7일 논산딸기축제장 본무대에서 개최된 '제4회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에선 예선을 거친 청소년 댄스동아리 12개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크루저'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주말인 7-8일에는 이틀간 순환 버스를 운영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해설사와 함께하는 논산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논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묵묵히 축제를 도운 1,850여명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와 편의 제공과 읍·면·동 주민들의 노력도 성공적인 축제개최에 기여, 축제를 더욱 빛나게 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대한민국 '제일'이라는 위상에 맞게 다양한 특색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통정

성희룡·성폭력 특별교육

최홍욱 계룡시장= 10일 오전 9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 성희룡, 성폭력 특별교육 참석.

김담희

노박래 서천군수= 10일 오전 10시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가족행복도시 서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정책간담회에 참석.

업무협약식

이용우 부여군수= 10일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열리는 부여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부여 문화재 야행 성황리막 내리

향교·의열사 활용 지역재생과 연결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6-7일까지 2일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림사지와 부여향교 일원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부여 문화재 야행'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봄꽃과 함께한 이번 야행의 참가자들은 각 행사장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부여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부여의 이야기가 담긴 체험과 공연프로그램을 즐겼다.

이번 야행은 이색장조거리의 '백미장 달밤 야시장'과 '컬링체험', 부여향교 앞 벚꽃길에서는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아트마켓 등이 펼쳐져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한데 어우러진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야행은 그간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던 부여향교와 의열사 일원에서 개최되어 문화재 야행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지역재생과도 연결되어 지역민의 호응을 얻었다.

또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세대를 대변하는 가수를 초청, 그들의 고인을 들어주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 문화와 소통했다.

군 관계자는 "부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장점을 융합하고, 문화공간으로 관심 받지 못했던 부여향교와 의열사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며 "남은 하반기 야행에서도 거창한 프로그램 보다는 친근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부여 문화재 야행은 11월 2일과 3일 세계유산 정림사지 일원에서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천군 냄새 없는 생청국 건강밥상 상품개발 교육 마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한 전문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석희성)가 지난달 16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서천군 생활개선회 회원 175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농산물가공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농기센터는 전문여성농업인 조직육성을 목표로 이번 교육 마련했

으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강민숙 박사와 전통음식 전문가 박수분 강사를 초빙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생청국의 우수성 및 제조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생청국은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콩이 한번 발효되어 체내흡수율이 95% 수준까지 올라 일반 두류가공품에 비해 효능이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우수종균을 이용해 생청국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한 가공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

천안시 신방도서관에서 '체인지 라이프' 하라

중·장년층유한건강·심리학·재취업 등 생활밀착형 특강 운영

천안시 신방도서관(관장 박상임)은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특강 '체인지 라이프'를 운영한다.

'체인지 라이프'는 생애전환기 또는 삶의 갈림길에 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심리학·재취업·재테크 등 실질적으로 관심이 높고 도움이 되는 주제와 인문학을 접목한 특강이다.

도서관은 최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노후대책이나 심폐계통 강연

은 다양하나 일명 '샌드위치 세대'라 불리는 중장년층을 위한 특강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특강을 기획하게 됐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오프닝, 강연, 질의응답, 사인회 순으로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며 강연 후에는 후속모임으로 실생활 정보를 교환하는 동아리도 조직할 계획이다.

특강자료실에는 특별테마코너를 설치해 관련 도서와 비도서, 잡

가 재취업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것과 마음가짐, 준비할 것 등 재취업 전반에 대해 다룬다.

11월 20일에는 '우리집 재테크'를 부탁해'의 저자 이지영 작가가 사소한 지출을 줄이는 법부터 큰 재무계획을 그리는 법까지 재테크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강연은 모두 30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프로그램별 선착순으로 천안시도서관 홈페이지(<http://www.chearango.kr/tbcb>)에서 받으며 전화(041-521-3955)로도 가능하다.

9월 18일에는 '김부장, 재취업 성공의 비밀'의 저자 김명희 작가

천안=이홍호기자

계룡시 생활속 규제 아이디어 공모

불편·기업 활동 등 규제개혁 과제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공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취업·일자리 애로사항 ▶국민 복지 저해 규제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 ▶시민안전 강화와 관련된 생활 관련 규제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7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공모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br8270@korea.kr), 우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부처 협의와 민생규제 심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과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는 오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동정

4월 중 계통회 월례회의



오시덕 공주시장은 10일 오전 11시 공주정수장에서 열리는 4월 중 계통회 월례회의에 참석.

동우 F&C와 MOU 체결식



김동일 보령시장은 10일 오후 2시 시청 상합실에서 열리는 동우 F&C와 MOU 체결식 참석, 오후 3시 시청실에서 민원상담의 날 운영.

장애인의 날 기념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산문화원에서 열리는 장애인 날 기념식에 참석, 오후 2시 성연 92-31에 위치한 성연 119안전센터의 준공식에 참석.

꿈기움 멘토링 멘토단 위촉식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0일 오전 11시부터 K-Water 공주정수장에서 열리는 '계통회 월례회'에 참석, 오후 3시부터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꿈기움 멘토링 멘토단 위촉식'에 참석.

하모니 자원봉사자 연수



조민행 보령교육장은 10일 7시 25분에 청리초등학교 외 9개교에서 열리는 '2018 안전한 등굣길 함께한 데이(DAY)' 행사에 참석, 10시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 유치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연수에 참석.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발대식

보령시는 9일 오전 학교급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학부모, 보령교육지원청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졌다. 건강먹거리 지킴이단은 학교급식 주체인 학부모들이 센터 운영관리 및 식재료 공급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학교급식 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건강먹거리 지킴이단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녀를 둔 20명의 학부모로 구성됐으며, 올해 4월부터 학기가 종료되는 내년 2월말까지 학교급식 정책의 제언, 모니터링 및 평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 체험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합동점검 ▲식재료 조달과정 및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발대식 이후에는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견학을 통해 식재료 수·발주, 저장, 소분 포장 및 배송, 물류 등 전 과정을 둘러봤다.

내년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

서산시, 지난해 대비 338억원 늘어난 1116억원 확보 목표

산시가 해 뜨는 서산으로 도약을 이끌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 외부재원 확보에 역량을 결집하고 나섰다.

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외부재원 확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전략과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완섭 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 보고회에서는 그간 각 부서에서 발굴한 44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필요한 외부재원으로 지난해 확보한 779억원보다 338억원이 늘어난 1116억원으로 잡았다.

계속사업은 ▲서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50억원 ▲서산A지구 간척지 재정비 180억원 ▲금학지구 농촌융복합사업 40억원 ▲산성지구 농촌융복합사업 40억원 등



이 핵심을 이뤘다.

신규사업으로 서산 비행정 민항시설 설치사업 10억원과 국도 38호선 노선연장(황금산-태안 만대항) 지정건의 및 확포장명지중·특교(교차로) 등이 발굴됐다.

특히 지난해 신설이 확정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와 연계해 근로

복지공단 서산지사 유치에도 적극 나섰다

시는 근로복지행정기관의 집적화로 충남 서북부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에 필요한 국비 20억원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윤러 대신임해산업지역 해수

담수화사업과 대신첨단정밀화학특화단지조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도 세웠다.

시는 이날 논의된 사업들에 대해 내부보완과정을 거치고 선풍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한편, 지역 정치인과 협력체계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외부재원 확보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목표로 두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기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시책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2018 이삼평 기념행사 개최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지난 7일과 8일 반포면 학봉리 이삼평공원에서 이삼평연구회와 함께 '2018 이삼평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삼평 공(公)(1579~1655년)은 공주시 반포면에서 태어나 도공으로 활동하다가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으며, 일본에서 자기의 원료인 백자광을 찾아내고 백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일본백자의 효시가 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는 매년 8월 11일이삼평 기일에 치러지던 이삼평 추모제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계룡산 벚꽃축제 기간 축제분위기에 속어서 열자는 취지에서 올해 첫 번째로 열리게 됐다.

7일 오전 10시부터 치러진 현대레에서는 조관관에 율홍공 공주시의회 의장이, 아현관에 이종현 이삼평연구회장과 조남수 학봉리 마을 대표가 공동으로 종현관에는 유우근 한국도자문화협회장이 참여했으며, 참석자 모두의 헌화로 이삼평공의 업적을 기렸다.

이 외에도 7일과 8일 이삼평 이삼평 이삼평연구회 사무국장의 대한 제작 시연 및 종현관 이삼평 관련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공주=정성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도서지역 양식장 해상절도 민관군 협력 방지

보령시, 섬 마을 양식장 해산절도 도난방지 민관군 협약체결

보령시는 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방주현 제8361부대 2대대장, 이진철 보령해양경찰서장, 오계진 도서지역 어촌계장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 마을 양식장 해산절도 도난 방지를 위한 민관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말 열린 도서지역 민생현장 방문에서 도서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양식장이 야간 등을 틈타 외지인들로부터 절취를 당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군부대와 해양경찰서, 어촌계

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8361부대 2대대는 레이더 감시를 통해 불법 어업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양경찰과 어촌계에 즉시 통보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마을어장에서 해상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예방을 위해 단속·순찰 등 예방활동 ▲어촌계에서는 야간순찰 및 군부대 통보 즉시 출동, 재산보호를 하고, 보령시는 면허어장 좌표, 선박대장(선명, 톤수, 외형 등) 등을 부대에 제공하고, 안보교육 등도 실시하게 된다.

오계진 어촌계장 대표는 "양식장 해상절도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양식장을 지키기 어렵다"며, "지난 도서지역 민생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셔서 관계 기관에 고맙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의 해산과 전북 등은 전국 어느 곳과 견줘봐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음에 따라 해상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갑수류 저해와 대비도 현대화되는 해상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시는 물론, 군과 경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지원사업 선정

공주시, 우성중학교 선정... 국비 4억 8천만원 확보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우성중학교가 최종 선정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 2개소, 충남에서는 3개소가 선정됐으며, 우성중은 이번 선정으로 국민체육기금 4억 8천만원, 충남도교육청 8억원 등을 지원받게 되며, 공주시가 3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6억원의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건립되는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920㎡, 지상 2층 규모로 체육관 안에는 농구장, 배구장 등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을 비롯해 편의시설과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시설로 건립된다.

특히, 이 체육관을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으로, 시민들에게 체육 및 문화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올해 국비 7억원을 확보해 반포초등학교와 공주여자고등학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오시덕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우성면민 및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생활체육시설 현대화를 통해 학생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제11회 금산천 봄꽃축제 성황

벚꽃만개 ·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인기몰이

제11회 금산천봄꽃축제가 7일 금산읍 금산천 일원에서 열려 성황을 이뤘다.

꽃샘추위로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벚꽃 만개시기와 어울려 봄맞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해가지기 의무가 필요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갔지만, 주최 측이 밤 빠르게 모닥불을 피워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왔고, 조명이 실린 벚꽃야경은 축제장을 화려하게 물들였다.

축제장 일원은 5000여명의 내방객들로 넘쳐났으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주인의식으로 손님을 맞이한 행사관계자들의 노력이 힘입어 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가훈추주기, 물고기 잡기, 풍선아트, 조각배타기 등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체험부스에는 손님들이 넘쳐났다.

축제의 재미를 더해준 토속떡볶이, 다양한 경품이벤트 등 실속있게 마련된 축제구성엔 집객력의 힘을 실었다.

주무대에서는 농악놀이, 난타, 민요, 색소폰, 통가타, 스포츠댄스, 아르떼무용, 노래교실, 어린이 트로트 대회, 노래자랑, 태권도 시범, 등 금산지역의 동아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연무대가 펼쳐져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반 벚꽃길은 문인화 전시, 사생대회 입상작들이 전시돼 어우름을 더했으며, 유니세프, 새마을회, 심바자원봉사 등 각 사회단체의 자원 활동 역시 축제성공을 견인했다.

가훈추주기, 이혈, 당채크, 뜰보법, 돌보미 봉사 등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험프로그램은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젊은가족의 꾸준한 증가는 금산천 봄꽃축제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금산=주연기기자

보령 고보조명 활용 이색적 도로명주소 홍보 '눈길'

보령시가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관광지 및 시내 일원에 설치한 고보조명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고보조명이란 조명을 필름을 붙여 문구나 그림을 바닥에 비추는 시설로, 야간 통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해 명천주공3차아파트-코아뷰아파트, 베이비원 스튜디오 뒤 골목길, 한내초교-동대주공 1차 아파트 사이 셋길 등 시가지에 고보조명을 설치했고, 올해는 대천 및 무장포해수욕장 등 9개 지역에 도로명주소 문구를 삽입해 설치했다.

특히, 도로명주소 안내 표지판과 도로명주소 원리 등을 표현하여 도로명주소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보령시 관광지 홍보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따뜻한 문구도 표현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대청로~대해로' 10km 이르는 구간엔 태양광 LED 도로명판을 설치 했는데, 태양광 충전시설을 갖춰 별도의 전력 공급이 필요 없는 친환경 시설물로 야간 보행장 및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조용한 민원지적과장은 "지난해 대전4등 등 일부 지역에 설치한 고보조명으로 직장인들의 퇴근길과 학생들의 늦은 밤 하교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이를 계기로 도로명주소의 안착을 위해 관광지 일대에 추가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캠프 성료

금산군 세대간 갈등 해소



금산군은 지난 4월 6일에서 7일까지 1박2일 동안 15가정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안 희망센터에서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캠프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참나인성 연구소(소장 한숙희) 주관으로 부

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 소통으로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간 소통을 위한 성격유형검

사(영영진강사), 소통공동체프로그램, 소통을 위한 건강힐링 체험, 마음건강-부모교육 다육이화분만들기체험, 가족역자 만들기체험, 맛들로 두부랑 비지전 체험 등 가족과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맛들로 두부랑 비지전 체험과 가족역자 만들기체험 시간에는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 소통과 배려의 시간으로 훈훈한 가족의 정을 나누는 등 가족관계 개선에 기여했다.

행사관계자는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을 통해 1세대와 3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었으며 1박2일 동안 서로 이해하고 함께 했던 행복한 추억이 삶을 살아가는데 에너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김정환기자

서산시 맞춤형복지팀 신설 마무리

복지사각지대 해소·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서산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신설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팀은 정부의 '찾아가는

보급복지서비스'에 발맞춰 찾아가는 복지상담, 맞춤형 서비스 연계,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한편, 찾아가는 방문상담 지원을 위해 전담 복지인력 10명과 방문상담차량 7대를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맞춤형 복지팀은 위기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복지자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완섭 시장은 "맞춤형복지의 전면 시행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은 물론, 현장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충남대,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혁신캠프 개최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Korea: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와 충남대는 9일 오후 2시, 산학연교육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와 함께하는 암학 혁신캠프'를 개최했다.



장제스 북경대 교수 등 중국 학자 일행 대전효문화진흥원 방문 지난 7일 장제스 북경대, 우젠 북대, 첸밍 절강사회과학원, 동평 절강대 교수 등 중국 학자 일행이 지난 6일 충남대 유학연구소 주최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휴머니즘과 양명학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계기로 대전효문화진흥원(원장 장시성)을 방문했다.



배방적십자사봉사회, 사랑의 열무김치 나누기 대한적십자사 배방봉사회(회장 고윤경)는 지난 6일 봄맞이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어려운 이웃이 찬거리 걱정을 덜도록 배방적십자사봉사회 회원 30여명이 모여 손수 담근 열무김치 60통(세대당 6.5kg)을 저소득가정 60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청양 출신 우리은행 김정은 농구선수 금의환향 청양군 정선면 출신 김정은(우리은행) 농구선수가지 지난 6일 고향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마을 주민들은 정선면 광생리 마을회관을 방문한 김정은 선수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번 2017~2018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MVP 선정을 축하하는 환영 행사를 열고 기쁨을 함께 나눴다.



충남동부보훈지청 '청림나무 기르기' 실시 충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채순희)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다짐하는 '청림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보훈지청 전직원이 청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카드에 적어 나무에 매달면서 지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모두가 청림카드를 읽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활절 맞아 부활하다 청양군 산성교회(담임목사 박원길)는 지난 5일 부활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200만 원을 청양읍사무소(읍장 이영훈)에 기탁했다.

우수기능인 발굴 위한 기능인의 축제 2018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 폐막

우수기능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일 열린 2018년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9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6일간 충남기계공고 동아미이스터고, 대전공고, 유성생명과학고, 대전교도소 등 5개 경기장에서 기계설계, 보석공예, 요리 등 36개 직종 298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충남기계공고에서 입상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는 금형종목 이새희 선수, 기계설계/CAD 직종 임원택 선수, 전기기기 김진희 선수 등 36개 직종에서 입상한 119명의 선수들에게 메달과 상금



이 수여됐다. 이번 지방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오는 10월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전광역시의 대표선수로 참가해 전국 시·도 선수들과 실력을 겨루게 된다. 대전시 현석무 일자리정책과 이영호기자

장은 "2018년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려 기쁘다"며 "올해는 선택과 집중으로 오는 10월 전국대회에서 종합 9위권을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21년 우리시에서 전국대회 개최될 예정인 만큼 기능경기대회 운영 전반을 혁신차원에서 재정비해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기능인들의 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전국대회를 앞두고 대전시는 16개의 전략직종을 선정해 집중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영호기자

'총장과 함께 하는 외국인유학생 간담회'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 공유하고자 마련



국립한밭대학교 총장 송하영은 9일 낮 12시부터 국제교류관 글로벌라운지에서 '총장님과 함께 하는 외국인유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열심히 수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온 외국인 언어연수생과 교환학생 등 40명이 참석해 송하영 총장과 함께 점심을 함께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하영 총장은 "언어연수생의 경우 한국어 과정을 마친 뒤 무엇을 할지 진로결정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소

질과 재능, 적성을 잘 고려해서 원하는 진로와 전공을 선택하고, 한발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매진해 성공의 초석을 쌓기 바란다"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부이 락 후영(19세, 베트남) 학생은 "우리 유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로 지은 최첨단 건물에서 수업을 들으니 편리하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다"며 "유학생 생활 동안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유학생들은 송하영 총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이어 국제교류관 언어체험실에서 한국어화를 관람했다.

이정복기자

이병호 aT 사장,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첫 순시

지원업체 격려... 지역본부 직원과 소통 나누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9일 취임 후 세종시에 소재한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체 ㈜임미농수산을 방문, 국내산 원료 소비촉진 및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이병호 aT 사장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방문,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격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우리 농업을 만드는 데 최

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농식품 산업을 선도한다는 공사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업무수행 시 사회공헌, 지역상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진 직원과의 대화에서 이병호 aT 사장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송병배기자



유천1동, 전달받은 생필품 기탁식

지역주민 200여명 기부한 생필품 전달

대전 중구 유천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한대진)는 9일 지역 내 사업체와 주민으로부터 전달받은 생필품 기탁식을 개최했다.

100명이 넘는 기부 손길로 모아진 350여만원 상당의 쌀, 라면, 화장지 등 다양한 물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유천동 서남부터미널 인근에는 숙박비가 저렴한 여인숙 등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어 타 지역에서 이

주해는 노숙자, 출소자 등 저소득 1인가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이와 같은 지역 특성에 맞춰 동에선 맞춤형복지팀을 꾸려 찾아가는 상담과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로 주민 맞춤 복지에 힘쓰고 있다.

한대진 동장은 "작은 정성이 모여져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사랑과 삶의 활력소를 전하고,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2018 청소년RCY 단원협의회 정기총회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7일 지사 대강당에서 충남 소재 10개교 대표 단원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청소년RCY 단원협의회 정기총회 및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과 3학년 허

범진 단원이 회장으로, 부이고 2학년 김성진 단원, 제원중 3학년 박수희 단원이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2018년도 청소년RCY를 이끌어 나갈 단원협의회 임원이 선출되었다.

김태성 기자는 "어르신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사진 촬영을 하면서 신문제작 과정에 참여해 노년에 활력을 충전하는 좋은 기회를 가진 수 있을 것"이라며 "즐거움과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한남대 박경용 원우회장,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한남대(총장 이덕훈)는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최고경영자(CEO)과정 52기 원우회장인 박경용 대표(주)동인가 대학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아트갤러리 김에진 대표

소방안전 트릭아트재능 기부



아산시 시민로 381 소재 아트갤러리 김에진 대표가 9일,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소방안전 홍보 트릭아트 제작을 시작으로 재능기부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안전교육은 주입식 집합교육으로 교육장을 벗어나면 잊어버리는 쉽고 전단지나 팸플릿 등의 홍보는 큰 방향을 일으키기 어려웠다.

김에진 대표는 평소 생활 속의 작은 시선과 관심이 재난·안전사고 피해예방의 초석이 된다고 보고 방문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트릭아트 제작을 행정복지센터에 건의하게 됐다.

봉사에 참여한 김 대표는 바쁜 일정에도 서울을 오가며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트릭아트를 완성했다. 트릭아트 작품 설치에 따른 비용은 아트갤러리와 온천동 소재 MH건설 김찬호 대표가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아산=리영주기자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지역

연리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미희이 충청남도 주관 지역연리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지역연리지원사업은 풀뿌리 공동체미디어 저변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복지관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1000만원의 지원비를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는 노인복지신문 발간에 쓸 예정이다.

노인복지신문은 어르신들이 겪는 이웃 이야기와 일상에서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밖에 유익한 정보 등을 담고 있으며 복지관에서는 이에 필요한 글쓰기, 사진촬영, 편집 등 전문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다.

김미희 관장은 "어르신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사진 촬영을 하면서 신문제작 과정에 참여해 노년에 활력을 충전하는 좋은 기회를 가진 수 있을 것"이라며 "즐거움과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데스크 칼럼

“여성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말아야”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소방서에서 인명구조와 관련 없이 출동한 건수는 42만3055건이다. 전체 구조출동건수(80만5194건)의 52.5%다. 하루 평균 1159건에 달한다. 벌집 제거가 37.4%로 가장 많고 동물 포획(29.8%), 문닫기(16.5%)가 뒤를 이었다.

특히 동물 포획의 절반이 사람에게 위협이 안되는 고양이·새·개와 관련한 출동이었다. 비응급 출동으로 해마다 수십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동물구조나 문 개방이라도 소방차 1대, 소방대원 3명이 투입되고, 왕복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최근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에 시행할 방침이다. 소방청이 마련한 출동 거절 기준안에 따르면 신고 상황은 긴급, 잠재 긴급, 비긴급 세 가지로 나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 방치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잠재 긴급', 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가 '비긴급'이다. '잠재 긴급'은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나 생활안전대, 유관 기관이 우선적으로 출동하게 된다. 도로 위의 낙하물이나 호우 침수 시 배수 요청 등 배 가지는 잠재 긴급으로 지정했다.

비긴급 상황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지 않는다. 신고자는 열쇠 업체, 차량 보험사 등 민간 업체를 불러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구청·소방관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는 일이 어찌어찌 아니기에 생활 민원성 신고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심지어 자기 집 현관 잠긴 문을 열어달라. 가게 안에 새 사체를 치워달라 등 비긴급 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대국민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소방관 출동이 이뤄져 오고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기대 만큼 비긴급 신고가 줄어들지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당장 일선 소방대원들이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침이 세분화됐다고는 하나 전화를 통한 신고 내용만으로 긴급과 비긴급 상황을 두부 자르듯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비긴급 신고라고 출동 거절 이유를 밝혔다가 나중에 해당 시민이 민원이라도 제기할 경우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되레 소방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세부기준이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논란만 야기할 채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마저 없다. 따라서 우선은 출동 거절 민원에 따른 소방관 보호책부터 세워야 하겠다. 나아가 아예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인력을 확충해 비긴급과 긴급 인력을 나누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런 제도 개선에 앞서 무분별한 비긴급 신고를 자제하는 시민 의식이 최우선임은 물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다. 한 여론조사에서 '신뢰하는 공무원 1위'로 뽑혔을 정도로 많다. 많은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이기도 하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고 밤샘근무 후 쉬는 날도 비상동원, 각종 교육과 예방점검, 산불이나 화재발생이 잦은 봄이나 겨울철에는 무기한 특별경계근무까지 서야 한다. 각종 재난현장에 늘 출동하여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을 수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가 바로 옆에서 순직하는 충격적인 일도 경험한다. 이 때문에 소방관 2명 중 1명은 이같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며, 10명 중 8명은 '자녀가 소방관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같은 여론조사가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도 정작 자신의 안전은 돌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방관들에게 문 따기나 동물구조 등 생활민원성 출동을 더 이상 요구해선 안 된다. 그야말로 화재나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에만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생활민원이 생긴다고 무조건 119부터 찾았다간 긴급구호를 방해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새로운 출동 기준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산 소방관 참사 직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이 긴급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소방관을 개인 심부름꾼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쇠를 따달라거나 개를 돌봐 달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입에서 개인 심부름꾼 소리가 나온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설령 119에 신고를 했음에도 출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출동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무의식중에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이 출동해 주기를 바란다. 심지어 TV가 나오지 않는다고 수도가 막혔다고 신고할 정도다. 이제부터라도 동물 구조나 문 따기, 차량 시동 등 생활 안전과 관련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소한 일로 소방대원이 출동한다면 화재 등 실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다. 긴급시만 119에 신고하는 의식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꿈을 펼치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여성소방관과 2명의 예비소방관들의 명복을 빌다.

사설

바람직한 '폐차이행 확인제'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대가 크다.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폐차이행 확인제가 시효로 끝나고 있다.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에만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생활민원이 생긴다고 무조건 119부터 찾았다간 긴급구호를 방해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새로운 출동 기준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산 소방관 참사 직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이 긴급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소방관을 개인 심부름꾼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쇠를 따달라거나 개를 돌봐 달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입에서 개인 심부름꾼 소리가 나온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설령 119에 신고를 했음에도 출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출동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무의식중에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이 출동해 주기를 바란다. 심지어 TV가 나오지 않는다고 수도가 막혔다고 신고할 정도다. 이제부터라도 동물 구조나 문 따기, 차량 시동 등 생활 안전과 관련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소한 일로 소방대원이 출동한다면 화재 등 실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다. 긴급시만 119에 신고하는 의식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꿈을 펼치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여성소방관과 2명의 예비소방관들의 명복을 빌다.

이같은 여론조사가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일주일째 멈춘 국회, 민생법안이라도 먼저 처리를

4월 임시국회가 개회 일주일일 넘도록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개헌과 방송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데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논란까지 겹치면서 더 꼬이는 형국이다. 9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오히려 여당에서는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발목만 잡는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야당 시절에 하던 때쓰기로 일관하는 것이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서로 '네톱' 공방만 벌이고 있다. 진영논리에 빠져 타협을 내팽개친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단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경쟁 속에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안건들은 무려 9,108건에 달한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안건의 70%가 넘는다. 이 중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규제 완화

와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투' 관련 법안도 130여건에 달하지만 아직도 삼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 일은 태산인데 여야는 싸우는 데 날 새는 줄 모르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빈손 국회의장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가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개헌이나 방송법같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되 이와 상관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부 법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 아닌 희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의 반발을 촉구한다.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빈손 국회의장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가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개헌이나 방송법같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되 이와 상관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부 법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 아닌 희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의 반발을 촉구한다.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빈손 국회의장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가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개헌이나 방송법같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되 이와 상관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부 법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 아닌 희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의 반발을 촉구한다.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빈손 국회의장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가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개헌이나 방송법같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되 이와 상관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부 법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 아닌 희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의 반발을 촉구한다.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빈손 국회의장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가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개헌이나 방송법같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되 이와 상관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부 법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 아닌 희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의 반발을 촉구한다.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빈손 국회의장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가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개헌이나 방송법같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되 이와 상관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부 법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 아닌 희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의 반발을 촉구한다.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빈손 국회의장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가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개헌이나 방송법같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되 이와 상관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부 법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 아닌 희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의 반발을 촉구한다.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빈손 국회의장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가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개헌이나 방송법같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되 이와 상관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부 법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 아닌 희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의 반발을 촉구한다.

기고

3·8민주의거 그리고 4·19혁명의 시대정신



민호기 대전지방보훈청 선양팀장

25년전의 폐허 속에 미국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1957년부터 원조가 대폭 줄고 경기침체와 실업이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물가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 농촌 경제 파탄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야겠다.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집권당인 자유당 정권은 안정적인 정권유지를 위하여 3.15 선거에서 이기기를 부동병으로 당선시키고자 부정선거를 치르려 한다. 이에 분노한 마산의 학생·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며 시위하자 경찰이 폭력으로 탄압해 시위는 잠시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4월 11일 최후반이 눈에 박힌 김주열(당시 17세, 마산상고 학생)의 사체가 마산 앞바다에 발견되면서 시위는 번져갔다. 당황한 집권당인 자유당 정권은 정치강패를 동원해 4월 18일 평화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는 고려대 학생들을 구타했다. 이를 계기로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4월 25일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이 잇따르자 결국 4월 26일 이승만 정권은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면서 허정의 과도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이처럼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아시아 최초의 민주혁명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의 싹을 틔운 4·19라는 열매의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도 전에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마란의 혁명으로 불리어지게 된다.

역사는 도전과 역전의 반복이라는 말처럼 4·19혁명이 반세기기를 지나는 동안 그 정신은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시위혁명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굳건한 정진적 버팀목이 되어 세계역사에서 전체주의 체제를 단숨에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국가로서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신적 근간이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역사의 한 부분이 된 4·19혁명은 단

순히 과거 역사의 4·19혁명이 아닌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 하는 역사가로서 현재에도 그 정신이 살아 '정의의 불꽃'을 비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그은 4·19혁명은 혁명의 루트가 있었는데 그 길은 대구의 2·28민주의거, 대전의 3·8민주의거, 경남 마산의 3·15민주의거, 그리고 4·19혁명이다.

특히 3·8민주의거는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며 지역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써 4·19혁명의 단초를 제공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기념탑이 서구 둔치미 공원에 있으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자유·정의·평화'라는 신작 버팀목이 되어 세계역사에서 전체주의 체제를 단숨에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국가로서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신적 근간이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역사의 한 부분이 된 4·19혁명은 단

황선봉 군수, 지역상생발전 우수기업 현장 방문·애로사항 청취

황선봉 군수는 6일 2018년 지역상생발전 우수기업에 선정된 곡동에치팜(주), ㈜고려비엔피, ㈜고비 3개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8년 지역상생발전 우수기업에 선정된 3개 기업에 인종 환관을 설치하고, 자연스러운 분

위기 속에서 대표 및 근로자들과 기업 애로사항이나 군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 중 하나인 곡동에치팜(대표 김경욱)은 오가면 월곡리에 소재한 기업으로 건강기

능식품을 생산하는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며, 고려비엔피(대표 김태환)는 신양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으로 동물약품을 생산하는 작지만 강한 동물 바이오 선도기업이다. 고비(대표 신진욱)는 고덕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으로 내충격성하수관을 생산하

며 많고 안전한 물 공급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이다.

황선봉 군수는 올 해 처음으로 실시한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하며 "그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물품 구입 및 지역인 채용, 직원 전입 및 봉사활동 등 예산군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엽 기자

행복청·세종시·LH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 손잡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세종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30분 행복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이원재 행복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스마트시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이 참석했다.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30분 행복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이원재 행복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스마트시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이 참석했다.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30분 행복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이원재 행복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스마트시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이 참석했다.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30분 행복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관련된 각종 계획 수립

▲ 규제개선 및 민간아이디어 발굴

▲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신거버넌스 구축·운영

▲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 기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관련 협회가 필요한 사항

아울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시범도시 지원 특별팀(T/F)' 운영(2018년 4월-)을 기반으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기업과 시민

의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데 3개 기관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부지·건축공사, 실제 도시운영에 이르기까지 선도적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행복도시 세종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시민을 위한 기술을 토대로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이 있는 도시"라며 "모든 세종주민, 나아가 모든 국민이 혁신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선도적인 스마트 시티 모델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 상태에서부터 세계적 스마트시티 모델로 건설하는 곳으로, 지난 1월 29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세종 합강리(5-1생활권)'와 '부산 에코델타' 두 곳을 선정하여, 시범도시 추진체계 구성 및 기본구상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복 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바른신론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제는 전광판 시대
광고문의는 대전투데이로

광고문의 : 042-538-3030